



●예방 정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 아니라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진 대피 요령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 지대일까? 최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터키와 대만의 지진 재해를 보면서 모두가 느끼는 불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진도 6~7에 이르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결코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지진 발생시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안전한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 글/문영숙(객원기자)
- 도움말/박병철(국립방재연구소 연구원)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산사태와 해일, 가스 폭발, 화재 등이 뒤따를 확률도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진도 6~7의 지진은 부실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따라서 부실 건축과 미비한 재난 방지 정책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진이 결코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닌데도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극히 낮다는 것.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 지대로 믿어왔던 까닭에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

도 지침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진은 순간적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다. 강한 진동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15초~1분.

따라서 지진을 느끼는 순간 당황하지 말고 대피 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대피 요령이나 행동 요령을 잘 알아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물 내부에 있을 때

지진은 약한 진동만으로 끝날 경우도 있지만 곧 강한 진동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진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바로 대처해야 한다. 지진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건물 내부의 불을

모두 끄는 것.

사용중인 가스 레인지나 석유 난로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은 모두 끈다. 선반이나 벽에 걸린 물건, 가구 등이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떨어질 물건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또 진동이 심하면 문이 비틀어져 비상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어두어 비상구를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건물 안에서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요령.

목욕탕이나 화장실처럼 좁은 공간, 튼튼한 테이블이나 침대,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거나 피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최소한 두꺼운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건물 밖에서는 건물 주변보다는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주택의 경우 1층보다는 2층이 안전하므로 밖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라면 2층에 머무는 것이 좋다.

바깥에 있을 때

번화가나 빌딩가에 있을 때는 떨어지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가장 위험하다. 주변에 마땅히 피할 만한 넓은 공간이 없다면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대피할 때는 가방 등을 머리에 얹어 떨어지는 파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땅이 심하게 흔들려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 주변의 기둥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잡고 싶어지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튼튼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자칫 무너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의 기둥이나 담, 자동판매기 근처는 피하도록 한다.

공공 장소에 있을 때

극장·경기장·백화점·상가 등 공공 장소에 있을 때는 지진 자체보다는 혼란이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황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출입구 쪽으로 몰려들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해야 한다.

극장에서는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출입구 쪽부터 차례로 빠져나가야 한다.

야외 경기장에서는 출입구보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지, 유리가 가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종업원 등의 안내를 받아 질서있게 대피한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는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지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진을 느낀 순간 정지 버튼을 눌러 바깥의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약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자동차에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중 지진을 느끼면 곧바로 길가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다. 강한 진동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처럼 변해 핸들이 불안정해

지므로 운행을 계속하다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차를 주차시킨 후 라디오를 들으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대피할 필요가 있으면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공터로 몸을 피한다. 이때 구조 차량이나 소방차 등의 진로 확보를 위해 차량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 문은 잠그지 않는 것이 좋다.

전철에 있을 때

전철에 있을 때는 차체에 고정돼 있는 기둥이나 손잡이를 꼭 잡고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린다. 이때 선반 위에 올려놓은 소지품은 재빨리 내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한다.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운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손으로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고압선에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무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바다에 있을 때

산에서는 산사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절벽과 경사지 주위가 가장 위험하다. 따라서 무너질 경사면이나 굴러떨어질 돌이 없는 넓은 장소를 찾아 재빨리 대피해야 한다.

주변에서 넓은 장소를 찾기 힘들면 뿌리가 깊고 큰 나무를 찾아 단단히 붙잡고 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좀더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한다.

바닷가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은 해일의 징조이므로 이때 물에 들어가거나 물가에 머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㉞